

#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수준 이하… 전면 재보고”

조승래 대변인… “공약 분석 부족… 지난 3년간 공직 기강 무너져”  
조세·재정 개편 TF 팀장 정태호 의원 선정… 안도걸 의원 등 합류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연일 쓴소리를 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행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 정밀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업무 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서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선정했다.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전 국정위원장 조승래(왼쪽)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입장해 국정위원장을 자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왼쪽)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입장해 국정위원장을 자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충청서 중앙-호남 연결해 균형발전 가교 역할할 것”

문진석 민주 원내수석부대표 의원  
장흥 출신… 고향 호남에 남다른 애정  
“5·18 정신이 내란 세력 물리쳐”



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계엄을 물리치고, 내란의 우두머리를 탄핵시키며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과 호남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장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사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호남 소외론을 불식시키고 호남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충청권에서 중앙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새 원내지도부의 요직을 맡은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남과 충청을 연결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지난 4월 국토위 간사로서 전북지역의 교통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수석부대표는 고향인 호남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내비쳤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추운 겨울 광장에 서부터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주

문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직접 만들어 낸 정부이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개혁, 국민통합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3년 간의 무능했던 윤석열 정부 아래 민생이 너무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민생경제 행보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과 여야 협상을 책임지는 중책이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정부와 소통하면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국회가 필요한 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권 교체에 따른 22대 국회의 달라진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민생과 경제가 정말 어렵다.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여야가 정례적 만남을 통해 대화하고 협의해 필요한 때 필요한 일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5기와 6기 원우 출신이며, 6기 회장을 맡아 리더스아카데미 활성화에도 힘써왔으며,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중복 공방’

국힘 “측근에 중복 인사 많아”… 이종석 후보 “일방 발언 동의 못해”

여야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대북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상황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능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론하며 “잘 아시는 분이 아니냐”고 하자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활동한 인사 중에 중복 인사가 많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분들을 중복 인사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10년 전, 20년 전 발언을 ‘기억하나,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초등학교에서 ‘1+1은 2냐, 이거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 연락소장인가,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사과 요구를 송 의원이 거부하자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중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